

주석(석의)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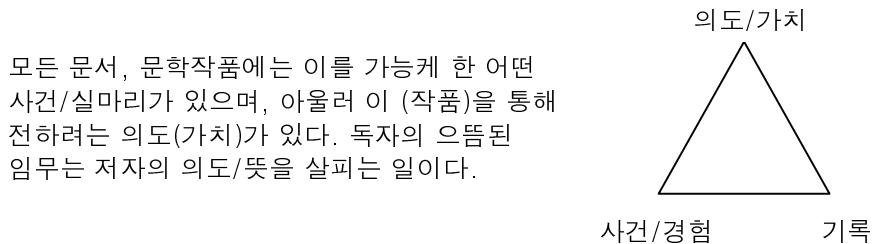
1. 뜻. Exegesis(ἐξήγησις/ ἐξηγέομαι) => ① recount, tell, or make known; ② lead, direct, govern (<ἡγέομαι)
 - Exegesis (본문으로부터 뜻을 끌어냄) vs. Eisgesis (본문 속으로 [내] 뜻을 집어넣음)
 - Q. 나와 관계없는 뜻/해석이 소용있나? 그런 뜻은 사라지게 마련
2. 과정=> 성서와 대화. The process of 'bringing out'—hence, bringing out the meaning/intention/value

물어야 할 질문=> 주석의 필요성

1. 왜 성서를 '이해'/'설명'해야 하나?
 - 언어, 문화의 차이. 성서의 말과 뜻이 [우리의 용도와] 다르기 때문. 이해할 수 있으면, 해석/설명이 필요 없다. (What do you mean by that?)
 - 성서 자체 內에서도 같은 말이 다르게 쓰임 => 다양한 이해를 반영
2. 주석의 전제/가정 (presupposition)
 - 질문이 있다(필요성). 그 질문에 대한 성서적인 견해/답을 얻고자 한다=> 그리스도인의 정체성
 - 질문이 없으면, 답이 없다.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'답'의 역할. 누구의 질문? 홀로 성서를 읽으면 내 질문. 설교는 청중들의 질문을 반영 (물론 내가 그 안에 있다. 삶의 자리는 Here and Now!)

간추린 과정: 주석 ABC

- A. 본문 설정. 어디서 시작, 어디서 끝나나?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나?
 - 본문이 주어질 수도 있고 (Common Lectionary Reading)
 - 스스로 생각해 낼 수도 있다. 주의할 점=>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, 성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까? 큰 그림을 늘 지니고 있다 (성서의 내용을 주지하고, 신구약 개론이 머리 속에 항시 있어야)
- B. 중심되는 단어, 주제 찾기 => 메시지, 의미/의도/가치
 - 본문을 숙독한다. 헬라어/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. (왜? 번역본과 원문은 다르다. 남의 말을 옮기는 것과 직접 듣는 것과의 차이). 최소한 3-4 개 다른 번역본을 참조. 영어 KJV/YLV, RSV/NRSV, NIV,... 한글 (개역, 표준새번역, 공동번역...)
 - 중심되는 단어/개념 연구/Word studies=> 성구사전, 신학용어 사전 참조 (TDOT, TDNT, ABD, IDB...)
 - 주석책(Commentaries). 주의할 점=> 주석을 쓴 이도 어떤 '해석학적 전제(hermeneutical presupposition)' 하에서 집필. 고로 성서 번역본을 3-4 참조하듯, 주석책도 다른 '해석학적 전제'를 가진 3-4 권과 비교.
 - 주석책의 임무는, secretary 처럼 내가 할 일을 대신 (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, 알고 또 할 수 있는 [잡]일을 대신 담당=>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야 함.)
 - 주석책은 일종의 reference book. 전부 읽을 필요는 없다. 또 다 읽을지라도 모두 이야기할 필요/이유는 없다.
 - 무엇에 초점을 둘까는 독자/청중의 질문과 연관. (가장 좋은 주석은 자신의 것^^)
- C. 의도/의미를 오늘의 말, 우리들 말로 바꾸기
 - 경험(사건), 기록, 의도(가치)와의 관계. 성서의 말과 글을 지금도 "구원"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=> 어떻게? (의도/가치/뜻의 재발견. 여기서, 이를 통해 성서/전통과 독자가 만난다.)



- 시공을 떠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의도(가치). 이것이 설교/메시지의 대상
- 실습하기 (ABD, BibleWorks, Commentaries)